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 큰 산 밀어 버리기 (속 4:1-14)

- 1.** 지난 주는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새 사명)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일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는 일곱 짝의 눈을 가진, 돌 된 자신에게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입은 예봇의 흉패에 있는 돌들에 이름을 새겨 지성소에 들어가듯,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려 주신 보혈로 우리의 이름을 새겨 천국, 지성소로 끝까지 데려가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이셨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환상은 무엇인지 아래 그림과 대조하며, 하나씩 짚어 봅시다. (2, 3, 12절)

- 순금 등잔대
- 기름그릇
- 일곱 관
- 두 감람나무와 두 가지



- 2.** 성전재건은 많은 반대에 부딪칩니다. 심지어 프로젝트 자체를 조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찾아 읽으며 어떤 반대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며,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10절, 참고/ 에스라 3:12, 학개 2:3)
- 3.** 결국 하나님의 일은 완성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가치있는 일입니다. (7절, 10절, 14절)
- 4.**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6절)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오.

적용하기



# RETURN & REBUILD (7)

## To Move a Big Mountain (Zech 4:1-14)

- 1.** In last week's passage, God removed filthy clothes from high priest Joshua, who represents us, and clothed him with rich garment(new calling). This work will be done through Messiah who will come. He will engrave seven sets of eyes to a stone, himself, the names of His people. This is much like the high priest entering the most holy place wearing ephod and breastplate with stones engraved with names. This was a promise of love from Jesus our high priest, who engraved our names with His blood from the cross, to take us to heaven, the most holy place. Let's examine each aspect of the fifth vision as we compare and contrast to the picture below.(v.2, 3, 13)

Apply to Life



- Golden Lampstand
- Bowls
- Seven channels to the lights
- Two Olive trees and two branches



- 2.** Rebuilding of the temple was up against many oppositions. There were people who even mocked this project. Find and read the scriptures below to discover what oppositions there were, and think about the lessons applicable to us.(v.10, Ref: Ez 3:12, Ha 2:3)
- 3.** At last, God's work will be completed. Even the smallest work has value . (v.7, v.10, v.14)
- 4.** All things are possible only when we put our trust in God. How does today's passage proclaim that? (v.6) Let's offer up a prayer of our faith and trust.